

쇼트트랙 유망주
최승완

매일 꿈꾸는 작은 도전자들

우리는 압니다.

꿈꾸는 미래는
매일의 작은 도전을 이어가는
힘이 된다는 것을.

이들의 상상 속 질주가 머지않아
사람들의 생생한 환호를 받게 될 것임을.

오늘의 간절한 바람이
내일의 눈부신 현실이 되기에

KT는 자라나는 모든 꿈을
응원하겠습니다.

kt, 당신과 미래 사이에